

## 한전, 공동혁신도시 시대 불 밝힌다

### 어제 나주 현장사무소 개소...내년 청사 착공 4천6백억 투입... 다른 공공기관 이전 촉진 기대

한국전력공사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에 현장사무소를 개설, 광주·전남 혁신도시 시대 서막을 활짝 열었다.  
9일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한전이 이날 혁신도시내 분사 부지에 현장사무소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사 청사 건립에 나섰다. 이 현장사무소에는 분사 건립

팀 직원들이 오는 12월까지 비정기적으로 상주하면서 설계에 따른 이전 업무를 추진하며, 청사를 착공하는 2011년부터 보다 많은 인원이 현장에 머물면서 한전 청사 건립공사를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한전 청사는 14만9천372㎡부지에 4천600억원을 투입해 지상 41층, 연면적 11만8천655㎡ 규모로

건립되며, 1천425명의 임직원이 공동혁신도시로 옮겨와 근무할 예정이다.  
현재 청사건립을 위한 기본설계가 4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다른 이전기관과 달리 실시설계와 착공이 동시 추진되는 탄기방식으로 발주된다.  
나도팔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

단장은 "한전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랜드마크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전 현장사무소 개소는 다른 공공기관들의 이전을 촉진하고 토지분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월 초 현재 혁신도시 기반공사 전체 공정률은 40%대를 육박하고 있으며 전력거래소 등 8개 기관이 부지매입을 완료했다. 전파연구소 등 8개 기관은 청사 설계발주를 했으며, 연내에 우정사업정보센터, 전파연구소, 사학연금관리공단, 해양경찰학교는 청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오지남 기자 ocn@namdonews.com



3D 영상 실감나오

국제 문화콘텐츠 산업전인 'ACE Fair 2010'이 9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 행사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3D TV를 보고 즐거워 하고 있다. /신광호 기자 sgh@namdonews.com

## 주말 비소식...아침·저녁 선선

주말 광주·전남 지역에 잦은 비 소식이 있으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남부지방에 확장돼 있는 북태평양고

기압의 영향으로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주기적으로 저기압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0일 밤부터 13일까지 국지성 호우와 잦은 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남부지방으로 상륙하

는 제 10호 태풍 '머란티(MERANTI)'의 간접영향을 받아 12일부터는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11일 광주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23℃, 낮 최고기온은 27℃로 비교적 선선할 것으로 보인다.  
/김덕기 기자 kdk@namdonews.com

## 민주당 全大 전초전...광주시당위원장 경선

### 내일 오후 4시30분 염주종합체육관서 김재균·강기정, 승리장담...부동표 변수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 결과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경선은 10·3 전당대회를 20여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대의원들의 표심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비주류 주자로 분류되는 김재균(광주 북을) 의원과 주류 주자로 분류되는 강기정(광주 북갑) 의원이 맞붙은 이번 시장위원장 경선은 11일 오후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광주 서구염주종합체육관에서 광주지역 8개 지역위원회 소속 대의원 500여명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시장 위원장 투표에 앞서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예비경선을 통과해 10·3 전당대회에 나서는 9명

의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연설을 하게 돼 있어 시장 위원장 경선이 전당대회 전초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경선을 앞두고 김 의원과 강 의원은 각각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하면서 도 최대 승부수가 될 부동층 대의원 공약에 총력을 쏟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경선의 성격을 주류와 비주류의 '대리전'으로 규정하고 "당 운영체제가 집단지도체제로 확정된 것 자체가 이미 쇠신모임으로 대표되는 비당권파가 주도권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경선을 '천(禪)정세군'인 강기정 대 반(反)정세군인 김재균 대결 구도로 몰고 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번 경선은 민주당이 광주에서 시민과

당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절치"라면서 "소통이 되고 일할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 의원은 시장 위원장은 청렴성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된다는 점을 들어 대의원들이 인물 위주의 선택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체적인 판세는 막판 부동층의 향방과 지역위원장의 성향, 투표에 앞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연설회 현장 분위기가 우열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지역정가에서는 현 시장 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이 결국 승패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김 의원은 아직까지 강 의원과 김 의원 가운데 누구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손을 들어준 적이 없다.  
하지만 성향을 놓고 보면 그는 지난달 비주류의 대표 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사실상 그를 공개 지지

했고 비주류측의 '개방형 전당원 투표제'를 제안한 바 있어 '김심(金心)'은 김재균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대의원은 "책상에서 하는 분석은 별 의미가 없다"면서 "현장에서는 여러 경우의 수가 얽잡히기 때문에 투표함을 개봉하기 전까지는 어느 후보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예약접수증**  
**히딩크관광호텔**  
특별할인  
-객실: 전 객실 50% 할인  
-웨딩홀: 웨딩패키지 할인  
-돌잔치: 숙박권 증정 및 패키지 할인  
결혼식, 돌잔치, 칠순연, 각종 세미나  
-행사비: 20,000원 / 23,000원  
25,000원 / 30,000원  
www.hidinkhotel.com  
예약문의 (062) 227-8500

## 전남도의회 "의정비 산정방식 형평성 어긋나"

### 지역 특수성 전혀 고려안돼...정액제로 전환돼야 내년 의정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키로

전남도의회가 올해 의정비를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자체별 재정지수에 따라 산출되는 의정비 결정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의정비 정액제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이기병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겸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 의정비는 앞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와 주민공청회, 조례 개정을 통

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현재 도내 광역·기초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므로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와 공동과제로 선정해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방식은 지역 특수성은 감안되지 않고 현행 지방자치법상 재정력 지수 중심으로 산출·결정되기 때문에 전남의 경우 경기지역 기초의원보다도 적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매년 의정비 결정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며 주민여론 분열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의원의 경우처럼 광역·기초의원 등으로 구분, 정액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정액제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의정비 산정(자치단체 면적)과 도서벽지 등의 특수성 등이 반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지난 2006년부터 연봉성격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지급받고 있으며, 4천748만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정비 수령액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kym711@namdonews.com

www.daejin-env.co.kr

(주)대진환경산업은 1989년 설립 이래 "맑게 더 맑게"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20년 전통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제조-시공-사후관리까지 One-stop 체제를 갖춘 기술혁신형(INNO-BIZ), 유망중소기업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품질·관리능력을 갖춘 인간중심의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 끊임없이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

- ▶수질방지사설업 - 비점오염 저감시설, 폐수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제조·설계·시공업 - 현수미생물
- ▶하수처리시설 제조·설계·시공업 - FNR, A2EBC, K-HBNR, EMBR
-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 ▶오수처리 관리업
- ▶환경기자재 - UV소독기, 무인원격시스템

**특허현황**

- ▶무산소·호기공정에서 철판 전기분해 생성물을 첨가한 하수의 인 고도처리기술(신기술 인증 제183호, 검증 제95호)
- ▶오폐수처리용 철-전기 분해장치 및 이를 이용한 오폐수 처리시스템(발명특허 제0490307호)
- ▶스크래칭 방식의 브로쉬 세척장치가 구비된 자외선 살균시스템 (발명특허 제10-0726465호) 외 발명특허 15건

**(주)대진환경산업**  
Dae Jin Environmental Industry Co., Ltd.

▲ 본사사옥 전경